

종합·해설

총선 격전지

김효석 의원 공천? 초미의 관심

담양·곡성·구례

담양·곡성·구례는 18대 총선에서 새로 조정된 선거구다. 인근 지역구인 영광·함평의 인구 하향선 미달로

바뀐 선거구로 판세 변화...예비후보만 10명

■담양·곡성·구례군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고광진, 김효석, 김정은, 김우석, 김광환.

성·구례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구도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김효석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무려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뛰어난 조정력을 보여 정치적 중립성을 키웠다는 평이다. 또, 화합형 지도력으로 동료 및 선

후배 의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급상승하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맞서 국창군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김 의원에게 물려줬던 지역구를 돌려받겠다며 강력한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담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 전 의원은 특유의 마당발을 바탕으로 상당 기간 바닥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양성철 전 국회의원도 도전

에 나섰다. 양 전 의원은 그간의 의정 경력을 바탕으로 참예된 담양·곡성·구례를 업 그레이트 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와 고현석 전 곡성군수도 출사표를 던지고 전직 군수로서의 조직력과 인지도를 내세워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김효석 의원과 맞붙었던 김정범 변호사도 '리턴 매치'를 의치며 표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고광진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이도 공천을 신청하고 지역 표발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후보를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로는 양우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뛰고 있으며 김갑환(건설업)씨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전략공천설 반발 통합민주당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한 공천신청자 지지자들이 3일 당산동 중앙당사 앞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수도권 전략공천 보도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鄭 '관악을' 출마카드 급부상

(동영) 학연·'터' 유리...동작·구로도 검토

통합민주당 안팎에서 정동영 전 통일장관의 서울 관악을 출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정 전장관은 "여러 고려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관악을 출마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가 뚜렷이 느껴지고 있다.

관악을 카드가 부상하는 것은 정 전장관의 '지역 적합성'이 높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3대 총선 때 이해찬 전 총리가 당선된 이후 20년간 내리 개척·진보진영 쪽이 맡아왔다.

지역민의 약 40%가 호남출신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이 서울지역 내에서 전통적 '터밭' 중 한곳으로 꼽는 지역이다.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려는 정 전장관으로서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학연도 작용하고 있다. 정 전장관이 서울대 출신이고, 얼마 전까지 지역구를 맡았던 이 전 총리와는 서울대 동기다.

다만 관악을은 지난달 초 이 전총리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를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준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당 주변에서는 정 전장관이 관악을 출마로 방향을 잡을 경우 이 전 총리와 만

나 출마 문제를 상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전 대선후보의 관악을 출마는 당의 총선전략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당의 총선승리 전략은 물론 정치도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당량규선(蠶鄉寃讞·논안의 이익에 어두워 뒤에 따를 격정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를 범하지 말고 당의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의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 현직 국회의원·관료 출신 '쟁패'

해남·진도·완도

채일병-이영호 공천 대결...김영록·민희식씨도

■해남·진도·완도군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김영록, 민병록, 민상금, 민희식, 양동주, 윤복현, 이영호, 이정일, 정병호, 채일병, 최시영, 살현호, 이만호, 최덕길.

과 친화력을 내세워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

완도 출신인 이 의원은 같은 섬지역자 수산전문가라는 점에서 진도군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해남에서도 먹혀들고 있어 지지층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다크호스는 완도 출신의 김영록 전 전남도 부지사, 김 전 부지사는 참신한 이미지에도 행정부(구 내부부)와 전남도, 강진과 완도군수 역할을 풍부한 행정경험이 큰 강점이다. 그는 특히 부지사 시절 해남과 진도에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3개 군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민희식 전 해남군수는 두 번의 군수 경력에서 쌓은 인맥과 조직력을 내세워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완도 출신의 최시영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도 지난 대선 경선 때 손화규 후보 후보토보를 맡았던 경력과 언론인으로서의 경험 등을 앞세워 민심에 다가서고 있다.

민주당에는 이 외에도 민병록 호산건설 대표, 민상금 한국토지공사 감사, 윤복현 전 무등일보 부사장, 양동주 경희대 교수,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공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민심을 훑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실질적 전 호남교육신문사 사장이 공천을 확정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평양통일가정당의 이민호 씨와 무소속의 최덕길을 비롯해 김영록 전 부지사, 김 전 부지사와 같은 섬지역자 수산전문가라는 점에서 진도군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해남에서도 먹혀들고 있어 지지층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광주·전남 공천자 확정

광주 동구 김태욱·서구 갑 정용화씨 등 17명

한나라당은 3일 광주 동구에 김태욱(59)사단법인 문화행동 대표를 공천 확정하는 등 17명의 광주·전남지역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3차 공천자 명단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 김 대표를 포함, 정순길(62·서구을) 전 광주시의회의장, 노영복(65·남구) 조선대 교수, 이기연(55·북구갑) 인수위 자문위원, 김천국(51·북구을) 당협위원장, 조재현(47·광산갑) 광주

시당 부위원장, 강경수(53·광산을) 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 7명이 광주지역 공천자로 확정됐다.

또 전남의 경우 천성복(45·목포) 미래2000종합광고기획사 대표, 주봉삼(61·여·여수갑) 서남조경 회장, 심정우(49·여수을) 능원기업 대표이사, 김기룡(45·순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창호(45·나주·화순) 이인이엔씨 부사장, 김광영(69·광양) 전 광주대 교수, 장귀석(54·고흥·보성) 보성군 홍보대사, 채계근

(52·장흥·강진·영암) 당 중앙위원, 살현호(57·해남·완도·진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한남열(50·함평·영광·장성) 전 당 전국위원 등 10명이 공천 내정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광주·전남지역 공천자는 총 20개 지역구 중 담양·곡성·구례를 제외하고 19개 지역구에 공천자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고기원(무안·신안) 전 3사단장과 정용화(43·서구갑)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을 전략공천자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10-9701-1111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전남고시학원 236-2467~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 출발 행정고시학원. 010-9701-1111